



II. 역점과제

- 제 1장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
- 제 2장 매장문화재의 보존·관리 강화
- 제 3장 무형문화재 원형보존 및 창조적 계승
- 제 4장 자연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관리
- 제 5장 등록문화재 보존 및 활용
- 제 6장 문화재의 관광·산업지원화
- 제 7장 국제협력 강화 및 남북교류 추진
- 제 8장 문화재 관리·정보시스템 강화
- 제 9장 문화재 조사 연구
- 제 0장 한국전통문화학교
- 제 1장 문화재 전문요원 양성
- 제 2장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행정 실현

제1장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

제1-1장 유형문화재의 보수정비

제1절 국보·보물

【 사업개요 】

전국에 산재한 석탑(石塔), 석불(石佛), 사우(祠宇), 누정(樓庭), 전적(典籍), 회화(繪畵) 등 유형문화재 중 역사적, 학술적, 예술적, 기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국보·보물로 지정, 보존하고 있으며, 당해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, 보존·관리에 필요한 토지매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. 2003년도에는 사업비 26,689,984천원(국비 18,683,000천원, 지방비 8,006,984천원)을 투입하여 총 141건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.

【 세부추진내역 】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		26,689,984 (18,683,000)	
승례문 (서울중구 국보 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C-TV교체설치 • 여장 및 성벽보수 • 홍예석보존처리 	471,428 (330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조 4년(1395)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(1398)에 완성하였다.
천전리각석 (울산 국보 14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유지매입 	500,000 (350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태화강 물줄기인 내곡천 중류의 기슭 암벽에 새겨진 그림과 글씨이다
상원사목조문수동자 좌상 (강원 평창군 국보 22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량선원 보수 	300,000 (210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는 신라 성덕왕 4년(705)에 보천과 효명의 두 왕자가 창건한 진여원(眞如院)이라는 절에서 시작된 사찰

(단위 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단양신라적성비 (충북 단양군 국보 198)	• 보호각보수	14,285 (10,000)	• 성재산 적성산성 내에 위치한 신라시대의 비로,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인 이 곳 적성을 점령한 후에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워놓은 것이다.
중원탑평리칠층석탑 (충주시 국보 6)	• 석탑실측	60,000 (42,000)	• 남한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잘 어우러져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으로, 당시에 세워진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다.
낭혜화상백월보광 탑비 (충남 보령 국보 8)	• 보호각개축	80,000 (56,000)	• 성주사터에 남아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승려 낭혜화상 무염(無染)의 탑비이다.
수덕사대웅전 (충남 예산 국보 49)	• 명부전보수 • 산문복원	478,571 (335,000)	• 성주사터에 남아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승려 낭혜화상 무염(無染)의 탑비이다.
실상사백장암삼층 석탑 (전북 남원 국보 10)	• 유구정비	142,857 (100,000)	• 실상사는 지리산 천황봉 서편에 위치한 절로, 통일신라 흥덕왕 3년(828)에 홍척(洪陟)이 창건하였다.
미륵사지석탑 (전북 국보 11)	• 석탑보수	1,200,000 (840,000)	• 백제 최대의 절이었던 익산 미륵사터에 있는 탑으로, 무너진 뒤 쪽을 시멘트로 보강하여 아쉽게도 반쪽탑의 형태만 남아 있다. 현재는 6층까지만 남아 있으며, 정확한 층수는 알 수 없다.
무위사극락전 (전남 강진 국보 13)	• 화장실개축 • 담장정비	200,000 (140,000)	• 무위사는 신라 진평왕 39년(617)에 원효대사가 관음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지은 절로,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름도 무위사로 바뀌게 되었다.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화엄사4사자삼층석탑 (전남 구례 국보 35)	• 석탑보수 • 탑전보수	300,000 (210,000)	• 지리산 자락에 있는 화엄사는 신라 진흥왕 5년(544)에 연기조사(緣起祖師)가 세운 절
보림사3층석탑 및 석등 (전남 장흥 국보 44)	• 선원단청	142,857 (100,000)	• 가지산 남쪽 기슭에 있는 보림사는 통일신라 헌안왕의 권유로 체징(體澄)이 터를 잡아 헌안왕 4년(860)에 창건하였다.
쌍봉사철감선사탑 (전남 화순 국보 57)	• 부도주변정비 • 보호책정비	100,000 (70,000)	• 쌍봉사(雙峰寺)에 세워져 있는 철감선사의 부도이다
석굴암석굴 (경북 경주 국보 24)	• 전선지중화	700,000 (490,000)	•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10년(751)에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을 시작하여 혜공왕 10년(774)에 완성하였으며, 건립 당시에는 석불사라고 불렀다.
봉황사석탑 (경북 경주 국보 30)	• 이끼류등제거 • 사자상탈락부분 보존처리	24,285 (17,000)	•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걸작품으로,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린 모전석탑(模塼石塔)이다.
부석사조사당 (경북 영주 국보 19)	• 방범시설 • 경내배수로정비 • 조사당진입로정비	100,000 (70,000)	• 봉황산 중턱에 있는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(676)에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화엄의 큰 가르침을 펴던 곳이다.
은해사거조암영산전 (경북 영천 국보 14)	• 발굴조사 • 요사채복원	200,000 (140,000)	• 은해사는 통일신라 헌덕왕 1년(809) 해철국사가 지은 절로 처음에는 해안사라 하였다고 한다.
통도사대웅전 및 금강계단 (경남 양산 국보 290)	• 담장 및 석축정비	357,142 (250,000)	• 통도사는 우리 나라 3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큰 절로, 신라 선덕여왕 15년(646)에 자장율사가 세웠다.

(단위 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창녕신라진흥왕척 경비 (경남 창녕 국보 33)	• 보호각 목책보수	10,000 (7,000)	• 빛별가야(지금의 창녕)를 신라 영토로 편입한 진흥왕이 이곳을 순수(巡狩:두루 돌아다니며 순시 함)하며 민심을 살핀 후 그 기념으로 세운 비이다.
창녕술정리동삼층 석탑 (경남 창녕 국보 34)	• 부지매입정비	1,000,000 (700,000)	• 탑은 2단의 기단(基壇)에 3층의 탑신(塔身)을 올린 형태로, 통일 신라 석탑의 일반적인 모습이다.
세병관 (경남 통영 국보 305)	• 기둥보수	100,000 (70,000)	• 세병관은 이경준(李慶濬) 제6대 통제사가 두릉포에서 통제영을 이곳으로 옮긴 이듬해인 조선 선조 37년(1604)에 완공한 통제 영의 중심건물이다.
해인사장경판전 (경남 합천 국보 52)	• 담장보수 • 연구용역	428,571 (300,000)	•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이며, 8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법보사찰이라고도 부른다
해인사대장경판 (경남 합천 국보 32)	• 경판청소 • 디지털작업	570,000 (399,000)	• 대장경은 고려 고종 24 35년 (1237~1248)에 걸쳐 간행되었다
서울동묘 (서울 종로 보물 142)	• 정문보수	70,000 (49,000)	• 서울 흥인지문(보물 제1호) 밖에 있는 동묘는 중국 축한의 유명한 장군인 관우에게 제사지내는 묘로서 원래 명칭은 동관왕묘(東關王廟)이다.
도동서원강당 및 사당부장원 (대구 달성 보물 350)	• 사당지붕 및 기단보수	50,000 (35,000)	• 도동서원은 문경공 김굉필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조선 선조 원년(1568) 처음 세워 쌍계서원이라 불렀다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용연사 석조계단 (대구 달성 보물 539)	• 담장보수 진입로정비	114,285 (80,000)	• 계단(戒壇)은 계(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)를 수여하는 식장으로, 이곳에서 승려의 득도식을 비롯한 여러 의식이 행하여 진다.
전등사대웅전 (인천 강화 보물 178)	• 벽화보존처리 및 수 지처리	100,000 (70,000)	•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(381) 아도화상이 세웠다고 전하지만 고려 중기까지의 역사는 확실히 알 수 없다
전등사범종 (인천 강화 보물 393)	• 범종보존처리 • 종각보수	200,000 (140,000)	• 일제시대 말기 금속류의 강제 수탈로 빼앗겼다가 광복 후 부평군기창에서 발견하여 전등사로 옮겨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다.
칠장사혜소국사비 (경기 안성 보물 488)	• 누각복원	300,000 (210,000)	• 혜소국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.
석남사영산전 (경기 안성 보물 823)	• 영산전보수	70,000 (49,000)	• 석남사는 통일신라 문무왕 20년(680) 고승 석선(奝善)이 세웠고 고려 초기 혜거국사가 넓혀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타 나중에 화덕(華德)이 다시 지은 절이다.
청룡사대웅전 (경기 안성 보물 824)	• 대웅전보수	390,000 (273,000)	• 청룡사는 원래 고려 원종 6년(1265) 명본국사가 세워 대장암(大藏庵)이라 불렀던 곳이다.
신륵사다층전탑 (경기 여주 보물 226)	• 전탑보수	50,000 (35,000)	• 흙으로 구운 벽돌로 쌓은 탑을 이르며,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안동지역에서 몇 기가 남아 있다.

(단위 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심복사석조비로자 나불 (경기 평택 보물 565)	• 화장실 개축	142,857 (100,000)	• 심복사 능인전 안에 모셔진 이 불상은 고려말에 파주군 몽산포에 살던 천노인(千老人)이 덕목리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이라고 전한다
강릉오죽헌 (강원 강릉 보물 165)	• 화장실개축	300,000 (210,000)	• 신사임당(1504 1551)과 율곡 이이(1536~1584)가 태어난 유서 깊은 집이다.
고성건봉사능파교 (강원 고성 보물 1336)	• 능파교 상단석축정비 • 석교 난간설치 • 능파교 주변석축정비 • 안내판 설치	120,000 (84,000)	• 고성 건봉사의 대웅전 지역과 극락전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무지개 모양의 다리
고성육송정홍교 (강원 고성 보물 1277)	• 홍교 하단 석축 보수 • 난간정비 • 잡목 및 주변정비 • 안내판 설치	190,000 (133,000)	•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와 탑현리의 경계에 있는 다리로, 하천의 폭이 12.3m 정도 되는 곳에 석축을 쌓고, 길이 10.6m의 다리를 놓았다.
동해삼화사3층석탑 (강원 동해 보물 1292)	• 사천왕문, 조사전 등 단청	250,000 (175,000)	• 삼화사에 있는 석탑으로, 2단의 기단(基壇) 위에 3층의 탑신(塔身)을 올린 모습이다
동해삼화사철조노 사나불좌상 (강원 동해 보물 612)	• 석축정비	100,000 (70,000)	• 삼화사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이 불상은 시멘트로 만든 대좌 위에 머리로부터 가슴과 배, 등판을 붙여 안치했던 것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철불좌상이다.
영월흥녕사징효대 사탑비 (강원 영월 보물 612)	• 석축 및 배수로 정비	300,000 (210,000)	• 흥녕사를 크게 발전시킨 징효대사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석비로,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.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백담사목조아미타 불좌상 부 복장유물 (강원 인제 보물 1182)	• 법화실 보수	300,000 (210,000)	• 백담사 극락보전 안에 주불(主佛)로 모셔져 있는 이 목불좌상은 서방 극락세계에 살면서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아미타불을 형상화한 것으로 조선 영조 24년(1748)에 만들어졌다
청평사회전문 (강원 춘천 보물 164)	• 석축정비 • 계단정비	142,857 (100,000)	• 청평사는 고려 광종 24년(973) 승현선사가 세워 백암선원이라 불렀다고 한다.
영국사삼층석탑 (충북 영동 보물 533)	• 석탑보수 • 발굴조사	192,857 (135,000)	• 영국사는 고려 문종 때 원각국사가 창건하였으며, 고려 고종 때 안종필이 왕의 명을 받아 탑과 부도와 금당을 새로 짓고 절 이름을 국청사(國淸寺)라 하였다.
사자빈신사지석탑 (충북 제천 보물 94)	• 보존처리 • 시굴조사	100,000 (70,000)	• 빈신사터에 세워져 있는 고려시대의 탑으로 상·하 2단으로 된 기단 위에 4층의 지붕돌을 얹은 모습이다.
장락7층모전석탑 (충북 제천 보물 459)	• 토지매입	400,000 (280,000)	• 탑이 서있던 절터가 논밭으로 변하여 절의 규모는 알 수 없고, 7층에 이르는 거대한 이 탑이 주위를 압도하듯 버티고 서 있다.
안심사대웅전 (충북 청원 보물 664)	• 석축보수	142,857 (100,000)	• 고려 충숙왕 12년(1325)에 원명국사가 다시 짓고 인조 4년(1626)에 송암대사가 수리하였다고 하며 한말에 고쳐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.
충주철불좌상 (충북 충주 보물 98)	• 철불좌상 보수	10,000 (7,000)	• 높이 0.98m의 철로 만든 불상으로 단호사 철불좌상(보물 제512호)과 같은 양식이며 더욱 엄격미가 강조된 점이 특징이다.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공주반죽동당간지주 (충남 공주 보물 150)	• 주변정비	142,857 (100,000)	• 대통사의 옛터에 남아 있는 이 당간지주는 서로 마주보는 안쪽 면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으나, 바깥쪽 면은 가장자리를 따라 굽은 띠 모양을 도드라지게 새겼다.
관촉사석조미륵보살입상 (충남 논산 보물 218)	• 보제루단청	142,857 (100,000)	•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상으로 흔히 '은진미륵'이라고 불리며 높이가 18m에 이르는데, 당시 충청도에서 유행하던 고려시대의 지방화된 불상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이다
쌍계사대웅전 (충남 논산 보물 408)	• 봉황루보수	142,857 (100,000)	• 쌍계사는 언제 세웠는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 남아있는 유적으로 미루어 보면 고려시대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
남양전씨종중문서 (충남 논산 보물 727)	• 주변정비	175,000 (75,000)	• 남양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오는 문서로 그들의 조상에게 내려진 왕지(王旨) 및 교지(教旨), 유서(遺書), 호적단자(戶籍單子) 등 총 27매이다.
안국사지석불입상 (충남 당진 보물 100)	• 시굴 및 발굴조사	114,285 (80,000)	• 안국사는 안국산(일명 은봉산)에 위치한 폐사지(廢寺地)로 1929년에 다시 세웠다고하나 또다시 폐사되었다. 이곳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높이 5m에 가까운 큰 석불입상이 있다.
천원삼대리마애불 (충남 천안 보물 407)	• 보호책설치	20,000 (14,000)	•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태학산의 해선암 뒷산 기슭 큰 바위에 높이 7.1m나 되는 거대한 불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마애불 윗부분의 바위에는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.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장곡사하대응전 (충남 청양 보물 18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대응전보수 • 운학루이전 	285,714 (200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선 정조 1년(1777) 고쳐 짓고 고종 3년(1866)과 1906년, 1960년에 크게 고쳐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
용봉사영산회괘불탱 (충남 홍성 보물 126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극락전 단청 	80,000 (56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가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영산회괘불탱으로, 괘불이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 뜰에 걸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대형 불교그림이다.
선운사대응전 (전북 고창 보물 29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팔상전보수 • 담장보수 	200,000 (140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선 성종 3년(1472)에 다시 지은 것이 임진왜란 때 불타 버려 광해군 5년(1613)에 다시 지은 것이다
선운사참담암대응전 (전북 고창 보물 80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응전보수 	100,000 (70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운사에 속해 있는 암자인 참담암의 대응전이다
선운사도솔암마애불 (전북 고창 보물 12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측 및 보호방안 연구조사 	142,857 (100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운사 도솔암으로 오르는 길 옆 절벽에 새겨진 마애불좌상
선운사지장보살좌상 (전북 고창 보물 28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변정비 	100,000 (70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동 불상 표면에 도금한 불상으로 선운사 도솔암에 모셔져 있다.
발산리5층석탑 (전북 군산 보물 27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호책 및 석축정비 	60,000 (42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래는 완주(完州) 봉림사터에 있던 것을 지금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.
귀신사대적광전 (전북 김제 보물 82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요사채개축 	142,857 (국비 100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귀신사(歸信寺)는 신라 문무왕 16년(678) 의상대사가 세운 절로 8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전한다.
실상사삼층석탑 (전북 남원 보물 3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탑보수 	100,000 (국비 70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상사의 중심법당인 보광전 앞 뜰에 동·서로 세워져 있는 두 탑이다.

(단위 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실상사증각대사응 료탑 (전북 남원 보물 38)	• 탑보수 및 보호책 정비	10,000 (70,000)	• 홍척국사의 사리를 모신 탑으로, 8각의 평면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전형적인 팔각원당형 부도이다. 홍척은 통일신라 후기의 승려로 시호는 '증각'이다.
실상사증각대사응 료탑비 (전북 남원 보물 39)	• 탑비보수 • 보호책정비	20,000 (14,000)	• 실상사에 있는 증각대사의 탑비 이다.
개암사대웅전 (전북 부안 보물 292)	• 석축정비	100,000 (70,000)	• 개암사는 백제 무왕 35년(634)에 묘 련대사가 세웠다고 전하는 절이 다.
화암사극락전 (전북 완주 보물 663)	• 극락전마무리 • 화장실개축	150,000 (105,000)	• 화암사는 불명산 시루봉 남쪽에 있는 절로 본사인 금산사에 딸린 절이다.
송광사소조사천왕상 (전북 완주 보물 1255)	• 사천왕상보수 • 사천왕문보수	300,000 (210,000)	• 대웅전을 향하여 오른쪽에는 동방 지국천왕(持國天王)과 북방 다문 천왕(多聞天王)이, 왼쪽에는 남방 증 장천왕(增長天王)과 서방 광목천 왕(廣目天王)이 위치하고 있다.
고도리석불입상 (전북 익산 보물 46)	• 석불주변정비	142,857 (100,000)	• 약 200m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2구의 석상으로, 사 다리꼴 모양의 돌기등에 얼굴, 손, 대좌 등이 표현되어 있다.
승림사보광전 (전북 익산 보물 825)	• 우화루보수	200,000 (140,000)	• 승림사는 고려 충목왕 1년(1345) 에 세워졌다.
임실용암리석등 (전북 임실 보물 267)	• 유구정비	200,000 (140,000)	•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석등으로 가운데받침돌을 제외한 각 부분 모두 신라시대 석등의 기 본형태인 8각을 이루고 있다.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장수향교대성전 (전북 장수 보물 272)	• 담장및 판석제거정비	30,000 (21,000)	• 장수향교는 조선 태종 7년(1407)에 덕행이 훌륭한 사람들을 모셔 제사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을 위해 나라에서 세운 지방교육기관이다.
피향정 (전북 정읍 보물 289)	• 피향정보수 • 보호책정비	285,714 (200,000)	• 자연을 벗삼아 쉼터로 사용하고 자 지은 피향정은 호남지방에서 으뜸가는 정자 건축이다.
금곡사삼층석탑 (전남 강진 보물 829)	• 석축정비 • 종각이전	300,000 (210,000)	• 금곡사에 세워져 있는 탑으로, 1단의 기단(基壇) 위에 3층의 탑신(塔身)을 올린 모습
능가사대웅전 (전남 고흥 보물 1307)	• 대웅전단청 • 응진당보수	300,000 (210,000)	• 조선 중·후기 호남지역 사찰건축의 일면을 보여주는 건물로 학술적·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.
금탑사괘불탱 (전남 고흥 보물 1400)	• 도난방지 시설설치	80,000 (56,000)	• 옆으로 긴 폭에 삼세불과 주요 협시보살을 그린 독특한 화면구성성을 이루고 있는 괘불이다.
곡성가곡리오층석탑 (전남 곡성 보물 1322)	• 석탑보수 • 부지매입	200,000 (140,000)	• 가곡리 매봉 북쪽 경사면에 위치한 절터에 있는 석탑으로, 2단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(塔身)을 얹은 모습이다.
중흥산성삼층석탑 (전남 광양 보물 112)	• 석축정비	142,857 (100,000)	• 신라 경문왕 때 도선대사가 창건한 중흥사(中興寺)가 자리하고 있었으나, 임진왜란 당시 왜병과의 격전끝에 승병들은 모두 죽고 절은 불에 타버렸다고 전한다.
화엄사대웅전 (전남 구례 보물 299)	• 범음료복원	428,571 (300,000)	•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탄 것을 인조 때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.

(단위 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천은사극락전아미타 후불탱화 (전남 구례 보물 924)	• 도난방지 시설설치 화장실보수	320,000 (224,000)	•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왕생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아미타여래가 극락정토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후불탱화이다.
화엄사화엄석경 (전남 구례 보물 1040)	• 석경탁본 • 촬영 • 전산화	400,000 (280,000)	• 석경(石經)은 경전의 원문을 돌판에 새긴 것인데, 화엄석경(華嚴石經)은 화엄경을 엮은 청색의 돌에 새긴 것이다.
나주철천리석불입상 (전남 나주 보물 462)	• 대웅전단청 • 석축정비	142,857 (100,000)	• 전체 높이가 5.38m나 되는 커다란 불상으로 하나의 돌에 불신과 부처의 몸 전체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(光背)가 조각되어 있다.
불회사대웅전 (전남 나주 보물 1310)	• 일주문복원 • 삼성각보수	428,571 (300,000)	• 불회사대웅전은 상량문 및 건축수법 등으로 볼 때 1799년(정조 23년) 중건된 정면 3칸, 측면 3칸의 장식성이 돋보이는 조선후기의 화려한 다포집이다.
다보사괘불탱 (전남 나주 보물 1343)	• 도난방지사설설치	80,000 (56,000)	• 화면 가득 서 있는 모양의 석가삼존불을 배치하고 그 윗부분에 보살과 여래 등을 작게 그린 괘불이다.
유신리마애여래좌상 (전남 보성 보물 944)	• 마애불보존처리 • 보호각건립 • 배수로 등 주변정비	200,000 (140,000)	• 전라남도 보성군 울어면 거의 전체를 병풍처럼 둘러 감싸고 있는 존재산의 북쪽 기슭에 새겨져 있다. 거대한 화강암의 바위에 한쪽 면만을 도드라지게 새긴 마애불(磨崖佛)이다.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선암사승선교 (전남 순천 보물 40)	• 승선교보수	300,000 (210,00)	• 선암사의 부도(浮屠)를 지나 경내에 이르면 시냇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널목에 놓인 다리가 승선교이다.
금둔사삼층석탑 (전남 순천 보물 945)	• 석탑보수 • 주변정비	100,000 (70,000)	• 낙안면 소재지에서 북으로 약 2km 떨어진 금전산의 무너진 절터에 자리하고 있는 탑이다.
송광사경질 (전남 순천 보물 134)	• 경질보존처리	30,000 (21,000)	• 두루마리로 나온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불교 공예품이다.
흥국사대웅전 (전남 여수 보물 396)	• 화장실정비	100,000 (70,000)	• 두루마리로 나온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불교 공예품이다.
영광신천리삼층석탑 (전남 영광 보물 504)	• 석축정비	80,000 (56,000)	• 이흥사(利興寺)의 옛터에 남아있는 3층 석탑이다.
불갑사대웅전 (전남 영광 보물 830)	• 칠성각, 팔상전보수 • 담장정비	285,714 (200,000)	• 불갑사는 백제 침류왕 원년(384)에 인도승 마라난타가 세웠다는 설과 무왕 때 행은 스님이 세웠다는 설이 있으나 세운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.
김완영정 (전남 영암 보물 1305)	• 도난방지시설설치	70,000 (49,000)	•
천관사3층석탑 (전남 장흥 보물 795)	• 석탑보존처리 및 • 보호책정비	50,000 (35,000)	• 천관사는 신라 진흥왕 때 통령화상이 창건한 사찰로, 천관보살을 모셨다 하여 천관사라 하였다.

(단위 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대흥사북미륵마애 여래좌상 (전남 해남 보물 48)	• 용화당 보수 석축보수	428,571 (300,000)	• 거대한 자연 암벽을 다듬어 그 위에 불상을 도드라지게 새겼으며 주위에는 불상이 들어앉을 자리를 만든 일종의 석굴 형태이다.
대흥사북미륵암3층 석탑 (전남 해남 보물 301)	• 석탑보수	50,000 (35,000)	• 두륜산 정상 부근의 북미륵암에 세워진 탑으로, 2단의 기단(基壇) 위에 3층의 탑신(塔身)을 세운 모습이다.
미항사대웅전 (전남 해남 보물 947)	• 방범시설설치 • 석축정비	200,000 (140,000)	• 미항사 사적비에 따르면 통일신라 경덕왕 8년(749)에 처음 지었다고 한다. 그 뒤 임진왜란으로 불탄 것을 조선 선조 31년(1598)에 다시 지었고, 영조 30년(1754)에 수리하였다고 한다.
미항사응진당 (전남 해남 보물 1193)	• 종각복원	200,000 (140,000)	• 미항사 사적비에 따르면 통일신라 경덕왕 8년(749)에 처음 지었다고 한다. 그 뒤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에 타 버려, 지금있는 응진당은 영조 27년(1751)에 지은 것이다.
유마사해련부도 (전남 화순 보물 1116)	• 요사채개축	142,857 (100,000)	• 유마사로 오르는 입구에 세워져 있는 이 부도는 부도에 새겨진 기록을 통해 해련스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.
관봉석조여래좌상 (경북 경산 보물 431)	• 참배장보수	300,000 (210,000)	• 경상북도 경산시 팔공산 남쪽 관봉 (冠峰)의 정상에 병풍처럼 둘러 쳐진 암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좌불상이다.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환성사대웅전 (경북 경산 보물 562)	• 일주문복원	250,000 (175,000)	• 흥덕왕 10년(835)에 심지왕사가 처음 지었으나 고려 후기에 화재로 불타버렸다고 한다. 조선 인조 13년(1635)에 신감대사가 다시 지었으며, 광무 원년(1897) 항월대사가 다시 세운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.
서악리삼층석탑 (경북 경주 보물 65)	• 지의류제거 • 배수로등주변정비	30,000 (21,000)	• 통일신라시대 모전탑 계열에 속하는 탑으로, 무열왕릉 동북쪽 비탈진 곳에 서 있다.
경주석빙고 (경북 경주 보물 66)	• 습기제거시설설치 및 전기설비	20,000 (14,000)	• 석빙고는 얼음을 넣어두던 창고로, 이 석빙고는 경주 반월성 안의 북쪽 성루 위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다
선산죽장동오층석탑 (경북 구미 보물 130)	• 초본류제거	50,000 (35,000)	• 선산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죽장사터에 있는 석탑으로, 주변에 석재와 기와조각이 널려 있어 건물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.
선산낙산동삼층석탑 (경북 구미 보물 469)	• 안전진단 및 탑보수	142,857 (100,000)	• 현재 이 탑은 약간의 손상이 있으나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,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인 2단의 기단(基壇) 위에 3층의 탑신(塔身)을 올린 모습이다.
도리사석탑 (경북 구미 보물 470)	• 석탑보존처리	50,000 (35,000)	• 도리사는 신라에 불교가 처음 전해질 당시 전설에 나오는 아도(阿度)화상과 관련이 있는 절이다.
지보사삼층석탑 (경북 군위 보물 682)	• 강설루단청 • 삼성전단청	71,428 (50,000)	• 지보사 경내에 자리하고 있는 석탑으로, 2단의 기단(基壇) 위에 3층의 탑신(塔身)을 올린 아담한 모습이다.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수도암약광전석불좌상 (경북 김천 보물 296)	• 약광전마루보수 대적광전마루보수	60,000 (42,000)	• 청암산 수도암 약광전에 모셔져 있는 높이 1.54m의 고려시대 석불좌상이다.
봉화축서사석불좌상부광배 (경북 봉화 보물 995)	• 보광전단청	200,000 (140,000)	• 문수산(文殊山) 정상 가까이에 자리잡은 축서사에 모셔져 있지만,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.
화달리삼층석탑 (경북 상주 보물 117)	• 석탑보존처리	71,428 (50,000)	• 사벌국(沙伐國)의 왕릉이라고 전해지는 곳의 서쪽에 있는 탑으로,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이며 1단의 기단(基壇) 위에 3층의 탑신(塔身)을 올린 형태이다
상오리칠층석탑 (경북 상주 보물 683)	• 안전진단 및 탑보수	285,714 (200,000)	• 탑이 세워진 이 곳은 장각사라는 절이 있었던 곳으로 전하나 확실한 기록은 없다. 탑은 2단의 기단(基壇) 위에 7층의 탑신(塔身)을 세운 일반적인 모습으로, 흙을 다져 만든 단 주위에 돌로 테두리를 잡아 구역을 정한 후 그 위에 탑을 세웠다.
북장사영산회괘불탱 (경북 상주 보물 1278)	• 보호각단청 • 명부전개축	400,000 (280,000)	• 숙종 14년(1688) 승려 화가인 학능 등이 그린 이 괘불은 길이 13.2m, 폭 8.07m이다
이천동석불상 (경북 안동 보물 115)	• 주변정비 (수목제거등) • 화장실건립	200,000 (140,000)	• 자연암벽에 신체를 선으로 새기고 머리는 따로 올려놓은 전체 높이 12.38m의 거구의 불상이다. 이러한 형식의 불상은 고려시대에 많이 만들어졌는데,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(보물 제93호)도 이와 거의 같은 수법을 보여준다.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개목사원통전 (경북 안동 보물 242)	• 심금당개축	200,000 (140,000)	• 개목사의 원래 이름은 흥국사로 통일신라 신문왕(재위 681 692) 때 의상대사가 세웠다고 한다. 전설에 따르면 의상대사가 절 뒤에 있는 천등굴에서 천녀(天女)의 기적으로 도를 깨치고 절을 세웠다고 하는데 '개목사'라는 절 이름은 조선시대에 바꾼 이름이라고 전한다.
화천동삼층석탑 (경북 영양 보물 609)	• 부지매입 • 주변정비	100,000 (70,000)	• 경북 영양군 화천동에 있는 탑으로, 2단의 기단(基壇)위에 3층의 탑신(塔身)을 세운 모습의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탑이다.
숙수사지당간지주 (경북 영주 보물 59)	• 주변수목제거 • 지의류제거	7,142 (5,000)	• 당간지주는 사찰입구에 세워두는 것으로, 절에 행사가 있을 때 이곳에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 두는데 이 깃발을 걸어두는 길쭉한 장대를 당간이라 하며, 이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라 한다.
가흥리마애삼존불상 (경북 영주 보물 221)	• 부지매입 • 지의류제거	171,428 (120,000)	• 강가 바위면에 본존불과 그 좌우에 서 있는 보살상을 각각 새긴 마애삼존불(磨崖三尊佛)이다
신암리마애삼존석불 (경북 영주 보물 680)	• 보존처리	14,285 (10,000)	• 경상북도 영풍군 이산면 신암리 길 옆 논 가운데에 있는 마애불로 바위 4면에 모두 불상을 새겼으나 지금은 삼존불(三尊佛) 외에는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다
영풍비로사석조아미타불좌상및석비로사나불좌상 (경북 영주 보물 996)	• 방법시설 설치	70,000 (49,000)	• 높이 1.13m의 아미타불은 원만한 얼굴과 당당한 어깨로 현실적 사실주의가 잘 반영되어 있다

(단위 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영천화남동석불좌상 (경북 영천 보물 676)	• 보호각건립 주변정비	80,000 (56,000)	• 경상북도 영천시 한광사(閑光寺) 뜰에 삼층석탑(보물 제 675호)과 함께 놓여있는 석불좌상이다.
병와유고 (경북 영천 보물 652)	• 배수로 등 주변정비	70,000 (49,000)	•
개심사지오층석탑 (경북 예천 보물 53)	• 주변정비 • 토지매입	150,000 (105,000)	• 고려 전기에 창건된 개심사에 있던 탑이었으나, 절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, 현재는 논 한가운데에서 있다.
동본동삼층석탑 (경북 예천 보물 426)	• 지의류등제거 • 주변정비	100,000 (70,000)	• 예천읍 한천(漢川) 북쪽의 석조여래입상(보물 제427호)앞에 자리하고 있는 탑이다. 탑과 불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절터였음이 분명하지만, 절 이름은 알 수 없다.
구산리삼층석탑 (경북 울진 보물 498)	• 토지매입 • 석탑보수	130,000 (91,000)	• 경북 울진군 구산리에 있는 탑으로, 2단의 기단(基壇) 위에 3층의 탑신(塔身)이 올린 형태이다.
고운사석조석가여래 좌상 (경북 의성 보물 246)	• 우화루보수 • 화장실건립	320,000 (224,000)	• 대좌(臺座)와 광배(光背)를 갖추고 있으며, 손상이 거의 없는 완전한 불상이다
대비사대웅전 (경북 청도 보물 834)	• 요사채보수	142,857 (100,000)	• 대비사는 신라 진흥왕 27년(566)에 신승이 세우고 진평왕 22년(600)에 원광국사가 보수했다.
밀성박씨삼우정파 종중소장문적 (경북 청도 보물 1237)	• 대문건립	40,000 (28,000)	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송림사오층전탑 (경북 칠곡 보물 189)	• 지의류 제거등 보존 처리	14,285 (10,000)	• 송림사 대웅전 앞에 서있는 5층 전탑(塼塔)으로, 흙으로 구운 벽돌 을 이용해 쌓아 올렸다.
보경사원진국사비 (경북 포항 보물 252)	• 팔상전보수	100,000 (70,000)	• 보경사에 있는 고려 중기의 승려 원진국사의 탑비이다.
보경사원진국사부도 (경북 포항 보물 430)	• 부도보존처리 • 주변정비	20,000 (14,000)	• 보경사 뒷산의 중턱에 서 있는 묘 탑으로, 원진국사의 사리를 모셔두 고 있다
밀양영남루 (경남 밀양 보물 147)	• 토지 및 지장물매입	300,000 (210,000)	• 여러 차례 고치고 전쟁으로 불탄 것을 다시 세웠는데, 지금 건물은 조 선 현종 10년(1844) 밀양부사 이 인재가 새로 지은 것이다
무봉사석조여래좌상 (경남 밀양 보물 493)	• 대웅전보수 • 화장실개축	250,000 (175,000)	• 신라 혜공왕 9년(733)에 법조가 영남사의 부속암자로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무봉사의 대웅전에 모 셔진 높이 0.97m의 불상이다
밀양천황사석불좌상 (경남 밀양 보물 1213)	• 석축정비 • 진입계단정비	142,857 (100,000)	• 경상남도 밀양 천황산 얼음골에 자리잡은 천황사 경내에 모셔져 있는 불상으로 통일 신라시대의 뛰어난 석불좌상이다.
석남암수석조비로 자나불좌상 (경남 산청 보물 1021)	• 보호각보수	214,285 (150,000)	• 지리산 중턱에 있던 석남암사지에 있다가 현재 내원사로 옮겨 놓은 돌로 만든 비로자나불상이다.
대원사다층석탑 (경남 산청 보물 1112)	• 탑보존처리	140,000 (98,000)	• 경내의 사리전 앞에 서 있는 이 탑은 2단의 기단(基壇) 위에 8층의 탑신(塔身)을 세운 모습으로, 꼭대 기의 머리장식은 일부만 남아 있다.

(단위 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산청울곡사괘불탱 (경남 산청 보물 1316)	• 도난방지 시설설치	70,000 (49,000)	• 화면 가득 보살형의 인물만을 단독으로 그린 그림으로, 가로 475cm, 세로 827cm 의 크기이다
진양효자리삼층석탑 (경남 진주 보물 379)	• 토지매입 주변정비	200,000 (140,000)	• 2단의 기단(基壇) 위에 세워진 3층석탑으로 아래층 기단은 현재 땅 속에 파묻혀 있어 그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.
관룡사대웅전 (경남 창녕 보물 212)	• 약사전 등 단청 • 대웅전배면 석축정비	200,000 (140,000)	• 1965년 8월 보수공사 때, 천장 부근에서 발견한 기록에 따르면 이 건물은 조선 태종 1년(1401)에 짓고,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광해군 9년(1617)에 고쳐 세워, 이듬해에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.
창녕석빙고 (경남 창녕 보물 310)	• 부지 및 건물매입 • 주변정비	428,571 (300,000)	• 서쪽으로 흐르는 개울과 직각이 되도록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으며, 입구를 남쪽으로 내어 열음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.
술정리서삼층석탑 (경남 창녕 보물 520)	• 부지 및 건물매입	428,571 (300,000)	• 신라식 일반형 석탑으로 2단의 기단(基壇) 위로 3층의 탑신(塔身)을 올린 형태이다.
영산만년교 (경남 창녕 보물 564)	• 만년교보수 및 주변 정비	30,000 (21,000)	• 마을 실개천 위에 무지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돌다리로, 실개천이 남산에서 흘러내린다 하여 '남천교(南川橋)' 라고도 불리운다.
함안대산리석불 (경남 함안 보물 71)	• 부지정비 • 발굴조사	142,857 (100,000)	• 대사골로 불리는 마을앞 절터에 3구의 불상이 남아 있어서 하나의 석불군을 이루고 있다.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벽송사3층석탑 (경남 함양 보물 474)	• 선원보수	142,857 (100,000)	• 벽송사는 조선 중종 15년(1520)에 벽송(碧松)이 창건한 사찰이다. 석탑은 2단의 기단(基壇) 위에 3층의 탑신(塔身)을 세운 통일신라시대 양식을 보이고 있다.
불탑사5층석탑 (제주 보물 1187)	• 발굴조사	100,000 (70,000)	• 원당사의 옛 터에 세워져 있는 석탑이다. 원당사는 조선 중기에 폐지되었고, 1950년대 이후 절터에 새로이 지어진 불탑사가 대신 자리잡고 있다.

제2절 사적(사적, 사적 및 명승)

전국에 산재한 사지(寺址), 패총(貝塚), 고분(古墳), 성지(城址), 요지(窯址), 유물포함층 등 역사유적의 중요한 역사상, 학술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(史蹟)을 원형대로 보존·관리하고자 총사업비 64,181,401천원(국비 40,667,000천원, 지방비 23,514,401천원)을 투입, 원형보존이 시급한 당해 문화재의 보수 및 주변정비, 보존·관리에 필요한 토지매입, 보급 선양시설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96건(사적 93건, 사적및 명승 3건)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.

(단위: 천원)

문 화 재 명	보 수 정 비 내 용	재 원 (국 비)	비 고
<사적> 계 93건		63,338,545 (40,077,000)	
巖寺洞先史住居址 (서울 강동 사적 267)	• 기본설계	142,857 (100,000)	• B·C 4,000~3,000년에 걸친 한강유역의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최대의 마을단위 유적